

뭐! 엄마가 온라인게임 마니야?

‘리니지2’ 이용자 27% 30대 여성
대부분 교육·자녀와 대화에 활용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층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 국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2’의 경우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지난 2003년 18.02%, 2004년 23.44%, 2005년 27.53%, 2006년 27.60%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여성 이용자를 공략대상으로 삼은 각종 멘스 게임 및 캐주얼 게임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호주에서 열린 호주영상문화법분류청 주최의 ‘국제등급분류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드러났다.

5일 학계에 따르면 호주 본드대학 재프 브랜드 교수는 호주 전국 1천600가구 4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8가구는 컴퓨터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며, 게임이용자 3명 중 1명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 교수는 이번 조사내용에 따르면 자녀와 게임을 함께 즐기는 부모들의 67%는 게임을 교육 목적

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62%는 게임을 자녀들과의 대화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교수는 2012년 무렵이면 게임 이용자의 남녀 성비가 동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국제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한 성신여대 법학연구소 김유승(정보학) 박사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교육과 지도 등 방향으로 정책의 큰 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고 윤장호 의사 영결식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지난달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테러로 전사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사고 당시 병장) 하사의 영결식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특전사장(葬)으로 거행됐다.

영결식은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 군 지휘관과 장병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고인에 대한 경례, 악력보고, 조사, 종교의식, 편지낭송,

현화, 조종 및 묵념, 폐식사, 운구 등의 순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영결식은 윤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듯 세찬 바람과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영정을 앞세우고 9명의 운구병이 영현을 영결식장으로 운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하사의 부모인 윤희철(65) 이창희(59)씨 부부를 비롯한 유족들은 유해가 운구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고인의 유해는 성남시 영생관리사 업소(성남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봉송돼 안장식을 거쳐 전사자 묘역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장애인 희망촌’ 함평에 짓는다

전남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촌으로 건립할 예정인 ‘장애인 희망촌’이 함평군 나산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5일 도청에서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전남 장애인 희망촌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실시한 입지 타당성 분석과 함평군 나산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입지 평가 결과 함평군의 총 평가인정 점수는 923점으로 강진군의 905점, 장성군의 729점에 비해 높아 최종 ‘장애인 희망촌’ 입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입지 평가 결과 실현 가능성과 정책부합성 부문에서 강진군에 각각 뒤쳤으나 입지성과 경제성 등에서 크게 앞서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산업형·관광레저형·지역밀착형 등 3가지 형태의 종합복지타운 중 어떤 형태로 건설하더라도 사업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라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이번 응액 조사에서 나타난 사업타당성과 입지타당성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10년 동안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국비와 민자 등 모두 1천34억 원을 들여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응액 조사에서 나타난 사업타당성과 입지타당성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10년 동안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국비와 민자 등 모두 1천34억 원을 들여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기자 redplane@kwangju.co.kr

을지만령

- 김종두



생각은 얇게 반응은 유치하게...

공동도급·하도급 비율 상향조정, 부실업체 정비

“광주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광주시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추진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고 부실업체 정비로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후진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정비로 지역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20여명 규모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 맡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반적인 지역건설사의 입지가 강화됨은 물론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혁신

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사들의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후진 의원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우수 업체들마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광주지역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203개, 전문건설업 1281개, 주택건설업 217개 등 모두 266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나 최근 들어 수주량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고 윤장호 의사의 영결식에서 장병들이 유헌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임원·국회의원 근로소득 최고

작년 월 평균소득 398만원 가장 많아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들도 341만원

전국 근로자기구 중 고위임직원, 의회 의원 등 관리자에 속하는 가구주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다른 직업군보다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근로자기구의 가구주 본인 월 평균 근로소득은 231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일반관리자·의회의원·고위 임직원 등 관리자가 308만7천원으로 9.6% 증가했다.

작업별로는 일반관리자·의회의원·고위 임직원 등 관리자가 308만7천원으로 9.6% 증가했다.